

아침세평

김요수

광주연합기술지주 대표



가까이 지내는 동무가 ‘어떻게 살 거야?’ 물었다. 청찬하고, 고마워하며, 부지런히, 친절하게 살아야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겠다는 말은 숨졌다. 난 우아(?)하니가.

대답은 했지만 기본이 끝났겠다. 교과서 같은 답이기도 하고, 그렇게 산다고 꼭 행복이 찾아오는 것도 아닐 텐데.

‘가고 싶은 데는 없어?’, 프랑스 몽펠미엘, 페루 마추픽추, 어디서 주워들은 것은 있어서 둘러봤지만 나에겐 그림의 떡이다. 왜 가고 싶어? 아름답고 환상적이잖아. 사서 한 고생 맛도 보고.

그때 옆에 있던 상연이가 툭 던진다. 누구랑 가고 싶은데?, 거기서부터 머리가 어지러왔다.

엄마 모시고 간다면? 스페인 산티아고는 어렵겠군. 아이들과 간다면? 준비할 일이 한둘이 아니겠는데. 동무들과 간다면? 어떻게 마음을 맞춰야하나. 혼자 간다면? 두려움이 앞서는데. 무엇보다도 돈은?

‘누구랑’을 떠올린 순간, 내가 그러던 여행지는 후다닥 바뀌고, 휘리릭 사라졌다. 바로 그때 삶의 핵심은 ‘누구랑’이란 것을 깨달았다.

기고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매년 5월 22일은 유엔(UN)이 지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이날은 유엔의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날을 기념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널리 알릴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처음 제정됐다. 이후 2001년부터는 매년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 기념일로 자리 잡았다.

올해 2025년 생물다양성의 날 주제는 ‘자연과의 조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Harmony with Natur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인간과 자연이 균형있게 공존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인류의 삶과 미래가 자연과 밀접히 연결돼 있음을 일깨운다.

오늘날 인간의 경제활동은 종종 생태계의 한계를 넘나 들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평균 기온 상승, 서식지 파괴, 교란종 유입 등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취재수첩

체육 꿈나무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체육 꿈나무들의 대추제인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전국 17개 시·도 2만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36개 종목이 김해종합운동장 등 4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수많은 체육 꿈나무들이 출전한다.

우선 광주에서는 육상 등 33개 종목에 1045명(선수 630명, 임원 415명)의 선수단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17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32개 등 총 66개의 메달을 목표로 나선다.

특히 근대 3종에 출전하는 이루리(광주체육 3년), 레슬링 최지원(광주체육 3년), 에어로빅 이

누구랑 살 것인가?

사람들은 잘 사냐고 물으면? 거의 딱딱하다고 한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투덜댄다. 하지만 뭣이 즐겁냐고 물으면? 꽤나 많이 재잘거린다. 아무리 거칠게 살더라도.

잘 사냐고 물을 게 아니라 언제 즐겁냐고 물어야 한다. 즐거운 일을 떠올려 즐겁고, 즐거움을 재잘거리니 또 즐겁고, 그렇게 즐거움이 쌓이면 괴로운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사는 게 즐거운 사람? 있겠지만 사는 일은 모두 힘들다. 즐거운 척, 보람 있는 척 할 수는 있어도! 어련이도 고달프다고 하는 걸 보면 나이와 상관없다.

높은 자리의 권력자도 힘들다고 하고, 이름이 알려져 평평거리도 힘들다고 하니, 가진 것과도 관계없는가 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철학자와 선구자들이 정답처럼 책을 썼다. 요즘 연구자들과 끈대들도 수많은 해법을 말로 쏟아낸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어렵고, 그렇게 살더라도 행복은 하늘에 별 따기 같은 신기루일 뿐이다.

그러니 잘났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달콤한 소리에 귀 호강이나 하고, 안다니 노릇하는 사람들의 그럴 듯한 소리에 속만 달랠 뿐이다. 혹시나 하지만 한 숨 폭 싣다.

우리는 배웠다는 사람들 덕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묻는다.

누구랑은 빼버리고! 물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바지 입은 뒤에 뻗츠 입는 소리처럼 들린다. 많이 배우고 크게 말할 줄 아는 유시민 작가쯤 되어야 ‘어떻게

살 것인가’란 책을 쓸 수 있겠다.

어떻게 살 건데? 배우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훗, 배우다가 날 새서 잠자기조차도 벅차다.

못 배워 초라한데 잘난 척까지 하느라 돕지 못한다. 돕지 못하니 도움 받지 못한다. 많이 겪어본 사람, 배운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적은 별로 없지만 실천하기가 참 난감하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냐고 물으면, 마당 있는 집, 마트와 학교와 병원이 가까운 집이라며 남들과 비슷하게 말한다.

하지만 누구랑 살 거냐고 물으면, 방과 화장실은 몇 개, 우리가 바라는 공간은 무엇? 고민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어떤 회사에 다니고 싶냐고 물으면, ‘월급 많고, 일은 적은 회사’라고 웃음웃소리 아닌 웃음웃소리를 한다.

누구랑 일하고 싶냐고 물으면, 말이 통하고, 일머리를 알고, 서로 도와주는 사람과 일하고 싶다고 하지 않을까?

어디를 갈 거냐고 물으면, 막연하게 멋진 곳, 누군가 다녀와 자랑한 곳을 고르기 쉽다. 누구랑 갈 거냐고 물으면 준비물과 일정이 구체적이고 치밀해진다. 우리네 삶이란 여행도 ‘누구랑 할 것인가’를 먼저 떠올리면 더 좋지 않을까?

나는 오늘부터, 뜬구름 같은 ‘어떻게 살 것인가’보다 ‘누구랑 살 것인가’를 먼저 떠올리기로 한다. ‘뭘 먹을까’가 아니라 ‘누구랑 먹을까?’, ‘어느 카페를 갈까’가 아니라 ‘누구랑 수다를 떨까’를!

“세계 생물다양성 날, 보호지역부터 실천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까지 생물종의 최대 50%가 멸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자연의 손실을 넘어, 인류의 삶 전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 등 다양한 생물권 보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NbS는 생태계가 지닌 고유 기능과 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유지함으로써,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지정과 관리가 있다.

지난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는 ‘30×30’ 목표를 채택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하고, 훼손된 지역의 30%를 복원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목표에 부응해 지난해 기준 육상면적의 약 17.8%, 해양면적의 약 1.84%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민 인식 제고와 민간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 지역은 자연 생태계가 우수한 만큼,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보호지역이 지정돼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지리산 등 7개의 국립공원, 담양 하천 습지를 비롯한 11개의 습지보호지역, 함평 고산 봉 등 4개의 생태·경관보전지역과 11개 시·군에 132개의 특정도서가 지정돼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의 ‘공팔’같은 존재로서,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세대의 삶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호지역은 단순히 보전을 위해 행위를 제한하는 공간이 아니다.

서식지 복원, 생태축 연결, 함산당굴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 등 보전 활동을 통해 동·식물의 서식처를 확대하고, 탄소 저감 효과와 함께 생물다양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실제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년에 걸친 노력 끝에 개체수 증가 등 자연 생태계 복원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보호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은 생태계가 우수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서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면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순천만 갯벌 생태관광의 경우 연간 수백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해 지역 인프라 개선과 보호구역 관리에 재투자하는 등 환경친화적 효과가 크다.

지금까지는 보호지역 관리가 보전과 복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보호지역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연환경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이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길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독자투고

대선 홍보물 훼손은 중대범죄

오는 6월 3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 후보자들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곳곳에는 각 후보자들의 기호가 표시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약력 등이 표시된 벽보가 부착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과거 현수막 등의 훼손을 비롯해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현수막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지금의 시대에는 이 같은 행위가 사라져야 하지만 벌써 벽보를 훼손하며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민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신성한 선거문화를 퇴색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명시돼 있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관련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민주적이고 깨끗하며 공정정대한 선거가 됐으면 한다.

진병진 여수경찰 대경도치안센터 경감

사설

화순탄광에 스마트팜 조성 성공하길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우리나라 1호 탄광이다. 1905년 한국인 박현경이 광업권을 등록해 문을 열었고 이후 118년간 남부권 최대 석탄 생산지로 ‘국민 연료’였던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산업구조와 시대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석유 등에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2023년 6월 폐광하게 됐다.

이런 화순 탄광에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된다고 한다. 지난해 폐광한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와 오는 6월 문을 닫을 예정인 마지막 국·공영 탄광인 강원 삼척 도계 광업소와 함께 산업 통상자원부기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을 하기로 했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화순군은 이곳에 골프장과 리조트 등 4700억 규모의 복합관광단지과 의료와 식품 분야의 농공단지, 스마트팜 단지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난해 7월 기재부 등의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민간자본 성격이 강한 골프장 등을 문제 삼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복합관광단지를 제외하고 스마트팜과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 제출한 것이다. 이 사업은 국비 870억원, 지방비 238억원, 민자 4777억원 등 총 59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공단지에는 식료품 제조업,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정밀공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을 유치하고 스마트팜 단지에는 스마트팜 시설을 비롯해 연구개발 지원시설, 스마트팜 근로자 주택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데 전남도와 화순군은 기존 계획을 수정·보완해 예타 통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기초공약에 ‘폐광지역 신 성장축’이 반영돼 있는데다 민주당 ‘우리동네 공약’에 화순군 공약으로 이 사업이 포함돼 있어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순군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 국회에 실시 설계 관련 예산 102억원을 건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31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탄광의 산역사인 화순 탄광이 변신에 성공해 침체에 빠진 주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

광주 북구 민·관 투표를 독려 ‘눈에 띄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투표 독려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역 골목형상점가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대선 투표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먼저 골목형상점가는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본투표일(6월 3일) 등 3일간 투표에 참여한 주민에게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골목형상점가 점포 이용 시 투표소에서 발급받은 투표 확인증 또는 투표 인증샷을 제시하면 된다. 할인 행사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식당, 카페, 미용실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구성된 120여개의 점포가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정보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연합회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역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 직원 투표 참여 챌린지’도 추진되고 있다. 첨단산단경영자협의회와 본촌산단관리공단이사회 주관하는 이 행사는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이 투표 독려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다음 참여기업을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챌린지는 총 2500여개사, 2만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 전반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북구도 현장 홍보 강화, 투표율 저조 지역 집중 홍보, 구 SNS 활용 등 종합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투표 당일인 6월 3일까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등 교통편이 불편해 투표를 포기하는 주민이 없도록 투표 당일에 셔틀버스를 왕복 2~5회 운행하기로 했다.

문인 북구청장도 투표 독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광주 북구 SNS 계정에 북구가 광주 5개 자치구 중 투표율 1위를 달성하면 물놀이장 개장 기념 물풍선 맞기, 북구민의 날 음악회 무대에서 노래 부르기, 6월 열린 만남의 날에 북구캐릭터 인형탈 쓰고 참석, 절기상 하자인 6월 21일 아이스버킷챌린지 중 주민이 원하는 1가지를 직접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민·관을 가리지 않는 광주 북구의 투표를 독려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면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열간)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